

# “에너지 절약 불편해도 동참”... ‘중동사태 종식’ 입 모아

##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강화 첫날

끝번호 3·8 차량 청사 출입 제한  
기존 시행 광주시청 등 혼선 無  
민원인 진입로 구분 안 된 곳선  
직원이 신원 확인 절차 밝기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타면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고 출퇴근이 불편하겠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동참해야죠. 하루빨리 중동사태가 끝났으면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미국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석유 에너지 소모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를 시작한 25일 광주 지역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이같은 반응이 잇따랐다.

5부제는 평일마다 자동차 번호판 끝번호를 2개씩 짝지어서 각 요일에 해당하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현재까지 인산부·미취학 아동 동승차량과 전기·소수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되고 이 외의 공공기관 종사자만 해당된다.



이란과 이스라엘-미국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석유 에너지 소모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를 시작한 25일 광주 동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시청 등 일부는 이미 5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의 제재만 가했던 예전과 달리 징계까지 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됨에 따라 5부제

홍보 강화와 함께 위반 차량을 색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오전 7시50분께 광주 남부경찰서는 “뒷번호 3·8번은 즉시 차량을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는 청사 내 방송과 함께 직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점검했다.

또 지휘 작전 차량에 대해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리는 비표를 배부하는 등 5부제 강화를 맞아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오전 8시50분께 광주 서구청사의 경우 직원과 민원인의 청사 진입로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청원 경찰들이 끝번호 3·8 차량에 대해 신원을 확

인해야 했다. 반면 광주 지역 5부제 시행 대상 중 한 곳인 전남대학교는 끝번호 3·8 차량 모두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진입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5부제 적용 대상인 교직원의 차량은 관리 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 있다”며 “교직원이 위반할 경우 시스템 메일을 통해 1차 경고, 2차 출입 제한, 4회 이상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5부제 시행 전 주차해둔 차량을 빼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이 때문인지 공공기관 인근 몇몇 주민들은 “주책이나 골목에 못 보던 차들이 늘었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일종의 ‘풍선 효과’는 있었지만, 다수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5부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의 한 부구청 공무원은 “부부가 각자 차량을 이용하는데 한 대가 5부제에 걸려 오늘을 등에 근무하는 남편 차를 얻어 탔다”며 “조금 불편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다들 힘든 만큼 서로 서로 잘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남구청 소속 직원도 “중동사태가 하루 빨리 끝나 5부제로 인한 불편과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 등이 모두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형우·윤찬웅·이연상 기자

## 日 강제동원 피해자 1년간 206명 세상 떠나

### 시민모임 “정부 차원 기억·계승 노력”

일제강점기 당시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00명이상이 지난 1년간 세상을 떠났다고 나타났다.

25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받은 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령자는 4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640명에서 32.18% 이상 감소한 수치다.

수령자가 줄어든 데 대해 시민모임은 “생존자들이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 수령자는 53명인데, ▲2020년 485명 ▲2021년 298명 ▲2022년 228명 ▲2023년 150명 ▲2024년 110명 ▲2025년 77명에 비해 보면 매년 생존자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피해자 대부분 100세 안팎의 고령이라 생존자 급감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강제동원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겪은 한 세대가 저물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상처와 역사적 증거를 어떻게 사회가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들로부터 가족이 겪어야 했던

무다 한 이야기를 모으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관련 자료 수집 ▲역사관 건립 ▲추모 공간 조성 등 정부와 자치단체 등의 기억 계승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민모임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는 27종의 교과서에 대한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견해가 그대로 실렸고, 위안부를 비롯한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기술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형우 기자

### ‘역사사건 왜곡 대응’ 활동가 2심도 유죄

역사 왜곡 우려가 제기된 역사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조사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신고 집회를 연 공익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을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역사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

원회 위원장인 A씨는 2024년 5월 순천역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집회는 역사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을 규탄하는 성격이었는데, A씨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기획단의 활동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는 목소리를 내 왔다.

/인재영 기자

## 경찰, 與 전남광주시장 경선 ‘허위 득표율’ 수사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배 후보 측이 특정인 7명을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예비경선 통과자 명단만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직후 지역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후보별 순위와 소수점까지 적힌 구체적인 득표율이 담긴 정체불명의 문자가 실제 결과인 것처럼 둔갑해 빠르게 확산했다.

이에 민 후보 측은 해당 문건을 유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피고발인을 특정해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문건의 입수 및 전과 경로를 집중적으로 파악해 최초 작성자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

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포 행위를 벌였는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육근 기자

### 현직 전남경찰 음주운전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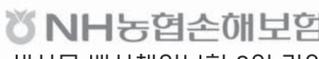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곡성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가 전날 오전 12시2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경찰 당국은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인재영 기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